

실로암 한인침례교회
Siloam Korean Baptist Church
March 29, 2026, 10:30 a.m.

종려 주일 (Year A)
Palm Sunday (Year A)



Immanuel Baptist Church
69 Saunders Road, Newport News, VA 23601
담임목사 장선욱 Senior Pastor Sean Chang, 757-867-8676
seanchang78@gmail.com
www.siloamkbc.org

모임 안내 Gatherings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Korean/English) 10:30 am
수요 성경 공부 Wednesday Bible Study (Korean) 8:00 pm via Zoom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예배 순서 WORSHIP ORDER

예배 인도자 Presider 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I 모이기 Gathering

교회 소식 Life of the Church 인도자 Presider

예배 기도 Invocation..... 인도자 Presider

찬양 Let's Praise! 다같이 All Together

H021 다 찬양하여라 Praise To The Lord, The Almighty

H298 속죄하신 구세주를 I Will Sing My Redeemer

H483 내 영혼이 은총 입어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신앙 고백 Affirmation of Fath 다같이 All Together

삶을 되돌아보기 Time to Reflect 다같이 All Together

평화의 나눔 Sharing Peace 다같이 All Together

중보 기도 Intercessory Prayers 다같이 All Together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다같이 All Together

II 말씀 The Word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다같이 All Together

마태복음 Matthew 21:1-11

설교 Sermon..... 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종려 주일 Palm Sunday

III 화답 Response

찬양 Let's Praise! 다같이 All Together

H620 여기에 모인 우리 We Will Keep Our Faith

헌금 기도 Offering Prayer 다같이 All Together

IV 파송 Sending

파송 및 축도 Sending Word and Benediction 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교회 소식 THE LIFE OF THE CHURCH

- 장선욱 목사 부부는 3 월 24 일부터 4 월 8 일까지 한국 방문합니다.
 - 그동안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모이겠습니다.
 - 수요일 zoom 을 통한 성경 공부는 봄 방학입니다.

기도 제목 THE PRAYER LIST

- 사도행전 2 장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 지역 봉사를 감당하는 교회
 -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 선교사들을 위하여
 - 조동천 (캄보디아)
 - 이낙원 (케냐) 우리가 지원하는 아이들입니다. Fabian Kamau Eunice Wanjiku Allysa Wambui Sharlin Akai
-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을 위하여
- 주위에 아픈 분과 돌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 자녀들을 위하여
- 여행하는 분들을 위하여
- 권세자들을 위하여

THE FIRST LESSON 이사야 ISAIAH 50:4-9

- 4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 5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 6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뱀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 7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딪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 8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툼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 9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흙이 그들을 먹으리라

시편 PSALM 31:9-16

- 9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 10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냄이여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 11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 12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 13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피하였나이다
- 14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 15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 16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서신서 성경 공부

본문 함께 살펴보기

빌립보서 2장 5-11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학적으로 심오한 찬양시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내의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근본적인 마음가짐을 본받으라고 촉구합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선제성(Pre-existence), 성육신(Incarnation), 그리고 비하(Humiliation)와 승귀(Exaltation)라는 구속사의 핵심 여정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표현은 신성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신성한 특권을 내려놓고 인간의 고통과 한계 속으로 기꺼이 들어오셨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십자가에 죽으심'은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을 수용하셨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낮은 곳까지 도달했는지를 극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에 응답하여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비하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찬양을 통해 교회가 추구해야 할 참된 공동체의 원리가 바로 이러한 '자기 비움'과 '겸손'에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말씀 속에 담긴 믿음의 주제들

그리스도의 마음 (The Mind of Christ):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공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선택의 원리를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비하와 성욕신 (Kenosis - Self-Emptying): '케노시스'라 불리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은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권력을 휘두르는 통치자가 아니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가져야 할 자세의 근거가 됩니다.

만유의 주권 (The Lordship of Christ): 십자가의 죽음 이후 이어지는 승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고난 받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권력보다 더 높은 영원한 주권자가 계심을 상기시키며 소망을 줍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돌아보기

우리는 종종 '높아짐'을 성공의 척도로 삼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권리, 더 높은 지위,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승리라고 가르치는 문화 속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은 낯설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나는 오늘날 나의 권리를 포기하기보다 주장하는 데 더 익숙하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은연중에 나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하거나, 타인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고 싶어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음을 강조합니다. 참된 영광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임을 신뢰하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성욕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멀리서 지켜보지 않으시고 그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도울 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처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성욕신적 삶'을 살고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곧 타인의 고통을 나의 것처럼 여기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함께 나누기 위한 질문들

1.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오늘날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도전을 주나요?

2. 최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권리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화평을 선택했던 구체적인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3.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의 일상(직장, 가정, 인간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실천을 위한 실행 계획

Day 1 (월): 비움 (Emptying) - 오늘 하루, 대화 중에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끝까지 듣고 수용해 보기.

Day 2 (화): 낮아짐 (Humility) - 공동체나 가정에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작은 일(청소, 정리 등)을 기쁜 마음으로 먼저 실천하기.

Day 3 (수): 복종 (Obedience) -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Day 4 (목): 섬김 (Service) - 주변에 고통받거나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작은 필요를 채워주기 (성육신적 접근).

Day 5 (금): 고백 (Confession) - 하루의 시작과 끝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며,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기.

마무리 묵상과 공동의 기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5, KRV)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겸손과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높아지려 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꺼이 낮아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을 비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주권만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GOSPEL 마태복음 MATTHEW 21:1-11

-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 산 벧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 2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 3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 4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들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 5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 6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 7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 8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겹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 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 10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 11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